

[論文]

天龍山石窟의 現狀과 佛像樣式의 研究

文 明 大

(東國大 教授)

차 례

- | | |
|--------------------|--------------|
| I. 머리 말 | IV. 佛像樣式의 編年 |
| II. 天龍山石窟의 歷史 | V. 맺 음 말 |
| III. 天龍山石窟의 現狀과 構造 | |

I. 머리 말

天龍山石窟은 山西省의 省都 太原에서 동 30 km 지점에 있는 天龍山의 동남기슭 백색 사암(沙岩) 절벽에 뚫려있다. 현재 중심부에만 총 25 굴(남북에 5, 6 개굴이 더 있음)이 개착되어 총 200 여구의 불·보살상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東魏시대부터 唐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만들어 온 것이다.

특히 오랫동안 황폐된 석굴을 우리의 선조였던 순장군 부부가 706 년부터 개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唐代를 대표하는 걸작 불상들이 많이 조성되어 唐佛像彫刻研究에 가장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 서구 열강들이 이들 굴실안의 걸작불상들을 마구 떼어가 현재는 참혹하기 이를데 없이 황폐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石窟의 現狀을 살펴보고 필자가 조사한(1991.6) 내용을 토대로 여러 설을 참조하여 佛像樣式을 時代別로 나누어 詩論的으로나마 밝혀보고자 하며 앞으로 좀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II. 天龍山石窟의 歷史

天龍山石窟이 조영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北齊를 창건한 文宣帝(高洋)의 부왕(父王: 高歡)이 이 절을 여름 피서 행궁으로 사용하던 시절로 생각되는 東魏 때(540 년경)에 조영되었으리라 생각되고 있다.¹⁾ 天龍山石窟 연구초기에는 北齊때 창건으로 흔히 논의되

1) 『太原縣志』, 成文出版社 및 荊乍林 『中國石窟彫刻藝術史』, 人民美術出版社, 1988, 2, pp. 80~81

었지만 현재는 東魏때 창건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 점은 제일 일찍 개착되었다고 생각되는 제 2, 3굴의 불상양식이 北魏末 내지 東·西魏양식과 동일하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밝혀지고 있다. 그 후 북제 때나 수나라 때도 여전히 조영되었다고 생각된다. 북제양식의 불상들이 보이고 있으며 8굴에는 수나라 때(584년) 개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8굴같은 본격적인 석굴이 만들어지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그 후 수당교체기에 황폐되었다가 우리 선인들인 순장군과 흑치씨 부부가 21굴을 개굴하면서부터 다시 활기를 띠어 많은 석굴을 조영하게 된다. 五代 때도 조영되었지만 당나라처럼 상황을 이루지 못하고 쇠락해져 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聖壽寺는 明清에 이르기까지 법등이 이어져 왔고 9굴의 4층 전실도 20세기까지 유지되어 왔으므로 天龍山石窟은 오랜 기간동안 불교도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하겠다.

III. 天龍山石窟의 現狀과 構造

1. 石窟의 現狀(도 1)

天龍山石窟은 天龍山의 두 봉우리인 東峰과 西峰에 걸쳐 개착되어 있는데 동봉에는 1~8굴이 있고 서봉에는 9~21굴이 배치되어 있다. 개착은 동봉 2·3굴부터 시작되어 점차 서봉으로 확대되어 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²⁾ 현재 석굴의 상황은 여러 번의 도굴과 복원으로 자꾸만 변하고 있다.³⁾

1) 제 1굴

1굴은 2굴에서 동쪽으로 떨어져 있다. 전실과 본실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굴형식인데 전실에 2구의 8각기둥을 세우고 창방, 위에는 공포와 八자형을 남기고 있다. 본실은 1면 3.3m의 정방형이며 각 벽에는 아치형의 감실을 파고 浮彫를 새기고 있다. 후벽 감실 안에는 本尊佛倚像이 새겨져 있는데 머리와 두 손이 떨어져 없다. 남아있는 신체도 거의 풍화되어 원형을 알 수 없을 정도이며 양협시도 없어졌다. 왼쪽 감실에는 本尊佛倚像이 새겨졌다. 본존상은 여원인·시무외인을 짓고 있지만 이 두 손과 머리는 떼어져 없다. 결가부좌로 앉아있는 체구는 가름하며 佛衣는 두꺼운 편이다. 대좌는 연화대좌이지만 풍화가 심한 편이어서 이 굴의 파손

2) 굴의 번호는 田中俊逸氏가 설정한 것(『天龍山石窟調査報告』, 『佛教學雜誌』 第三卷第四號, 大正 11年, pp. 335~337 및 『天龍山石窟』, 大正 11年, 金尾文淵堂을 그대로 따른다.

3) 石窟과 佛像의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주로 참조했음을 밝혀둔다.

① Harry Vanderstappen and Marylin Rhie: The Sculpture of T'ien Lung Shan Reconstructure and Dating, ARTIBUS ASIAE Vol xxvii, 3, 1965.

② 林良一·鈴木潔, 「天龍山石窟의 現狀」, 『佛敎藝術』 141號

③ 田中俊逸, 앞책과 논문, 1992.

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오른쪽 감실에도 三尊佛이 새겨져 있지만 마찬가지로 머리와 오른손이 없어지고 신체와 대좌도 풍화되어 원형을 알 수 없으며 양협시도 탈락되고 없다.

2) 제 2굴(도 2, 도 3, 도 4)

2굴에서부터 8굴까지는 서봉은 9굴과 동쪽 1굴 사이의 동봉 절벽에 잇달아 개착되어 있다. 2굴은 절벽의 오른쪽 끝 부분에 있는데 입구 높이 1.5 m, 너비 0.9 m, 굴평면은 한번이 2.4 m인 정방형 굴실이지만 최대크기는 길이 2.6 m, 너비 3 m 나 되었으며, 높이는 2.6 m이다. 바닥은 20 cm 나 암반을 파서 길이 2.1 m, 너비 1.8 m의 정연한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바닥은 전을 깔았으나 현재는 모두 깨어져 없어졌고 흔적만 남기고 있으며 이 위는 수미단을 새겨놓고 있다. 입구 좌우에 아난과 가섭상이 얹게 부조되어 있고 이 위 입구문 상부와 나란하게 선정불좌상을 좌에 4구, 우에 6구씩 새기고 있다.

후벽에 장막이 새겨진 감실(높이 1.5 m, 너비 1.2 m) 안에는 결가부좌한 불상이 새겨져 있는데, 본존(全高 121 cm, 身高 86 cm, 臺高 35.5 cm)은 시무외·여원인을 짓고 있는 좌불상으로 오른손이 없어졌을 뿐 거의 완전한 佛倚像이다. 불상은 다소 경직되었지만 단아한 형태, 단정한 양감 등을 표현하고 있는데 얼굴이 수척하고 눈·코·입이 작지만 코뿌리(耳根)가 높아 묘한 인상을 주고 있다. 좌우 보살입상은 감실외벽 좌우에 배치되어 있는데 오른쪽(向左) 보살상은 두 발만 있을 뿐 전신이 떨어져 나갔으며, 왼쪽 보살상은 머리가 없어지고 남아있는 신체도 의문이 희미하게 몇가닥 보일 정도로 마멸이 심한 편이다.

왼쪽 벽(向右壁으로 東壁인데 이하 왼쪽벽으로 하겠음)에는 감실 안에 삼존상이 부조되어 있다. 본존은 佛倚像인데 머리(독일켈른동양미술관소장)와 오른팔이 없어졌을 뿐 비교적 잘 남아있다. 왼쪽 보살상은 왼손에 정병을 잡고 있는 모양이며, X자형 천의가 무릎 위에서 교차되고 소매가 넓은 독특한 옷을 입고 있는데 떼어간 부분은 미국포그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오른쪽 보살상은 머리와 신체 모두 떼어가 광배흔적만 남기고 있을 뿐이다. 감실 좌우에는 상하 2단으로 이불병좌상을 얹게 부조하고 있어서 독특한 인상을 주고 있다.⁴⁾

오른쪽 벽(向左壁：西壁)에도 용머리가 새겨진 아치형 감실이 조성되어 있는데 감실내에 佛倚像이 부조되어 있고 감실 밖에는 양협시보살상이 부조되어 있다. 본존(高 113 cm, 頭高 21 cm, 顔高 12.5 cm, 어깨너비 36 cm)은 오른손이 결실된 외에는 거의 완전하며 양협시보살도 오른편 보살상은 완전하게 남아있으며 왼쪽 협시상은 떨어져 나갔으나 연꽃대좌는 남아 있다.⁵⁾ 본존은 얼굴이 우아하고 세련된 귀족적인 모습인데 동서위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상체는 볼륨감이 뚜렷하지 않는 단정한 체구이지만 상당히 우아하며, 비교적 두꺼운 통견의 속에 있는 체구, 특히 두 다리는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 다리와 다리 사이에는 세세한 띠주름

4) 스테판은 이 굴 동벽불상의 복원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다(Vanderstappen·Rhie : 앞글 제 2굴 참조).

5) 林良一씨 등이 조사했을 때는 본존 머리가 없었으나 현재는 복원해 놓고 있다. 이 불두가 제것인지는 명쾌하게 알 수 없으나 불인 자국이 일치하고 있다(林良一·鈴木潔, 『天龍山石窟の現狀』, 『佛敎藝術』 141호, p. 73).

이 평행으로 중첩되고 있는데 세련된 의문을 표현하고 있다. 대좌는 상자형이며 발밑에 놓여 있는 둥글고 큼직한 연화족좌는 복판의 연관이 작고 끝이 날카롭고 볼륨이 강한 편이어서 꺾인상적이다. 왼쪽 보살상은 완전히 떼어가 광배 흔적만 보이며, 오른쪽 보살은 완전하게 남아 있는 보살입상인데 늘씬한 체구(高 96 cm)에 우아한 얼굴을 나타내고 있는 아름다운 보살상이다. 보살상 머리 위에는 선정불좌상 3 구씩 부조했는데 오른쪽은 떼어가 버린 상태이다.

입구 안쪽의 양쪽 나한상과 천정에 새겨졌던 얇은 비천상은 떼어가 포그미술관에 들어가 있다. 2 굴을 나와 3 굴로 가다보면 바위면에 이수가 있는 명문없는 비(碑)가 새겨져 있다. 이 비는 아마도 2 굴과 3 굴을 조성한 여러 정황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내용으로 생각되므로 그 대로 있었다면 천룡산석굴을 개착하게 된 사정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지만 글만 모두 없어져 너무 애석하게 생각된다. 이수 중앙 감실안에 작은 삼존상이 새겨져 있어서 꺾인상적이다.

3) 제 3 굴

3 굴의 입구는 나무로 입구를 막고 있지만 너무 허술하여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눈에 꽤 거슬린다. 3 굴도 2 굴과 거의 비슷한 모양의 석실이며 크기나 불상도 유사해서 같은 시기인 천룡산석굴 개착 때 나란히 조성한 굴실임을 알 수 있다. 3 굴의 평면은 2.4 m 정방형 굴실이지만 최대크기는 2 굴과 흡사하며 바닥 역시 20 cm 를 파고 전돌을 깔았던 것으로 보인다.

입구문을 들어서면 좌우 벽면에 부조로 새긴 공양자상을 볼 수 있는데 애석하게도 右 1 구는 山口 컬렉션에, 왼쪽 3 구는 포그미술관에 떼어가 버려, 텅빈 느낌을 주며 전 벽면을 바라 보면 부조상들은 떼어간 자국을 선명하게 남기고 있다. 천정의 비천 4 구도 역시 포그미술관에 들어가 버려 복두형 천정도 허전하게 보인다.

후벽에는 1.45 m 의 감실을 파고 감실 안에 삼존상을 고부조로 새기고 있으며 감실 밖 좌우에 2 나한을 얇게 새기고 있다. 본존불은 머리와 오른손끝이 결실된 외에는 완전한 편이다. 裳懸座 위에 결가부좌하여 시무외·여원인을 짓고 있는 이 본존상은 단아한 체구, 부드러운 양감, 유연한 선묘 등 자연주의적인 작풍이 상당히 농후하여 우아하고 세련된 불상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2 굴 불상보다는 그러나 수척하고 평관적이어서 시대적 차이를 느끼게 한다. 삼국시대 6세기 불상의 전형적인 모습과 닮고 있어서 서로간에 친연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두 협시보살은 머리를 떼어갔고(右보살머리 繭山 수집) 체구는 半破된 상태이지만 삼곡자세의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감실 밖의 2 나한은 모두 떼어가 포그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다.

왼쪽 벽면에는 감실내에 삼존상을 새겼고 감실 밖 좌우에는 협시군상이 있는데 오른쪽에 공양자, 왼쪽에 樹下菩薩, 維摩居士, 공양자상들이 얇게 부조되어 있다. 본존상은 의좌상인데 머리, 오른팔, 왼손이 결실되었지만, 다른 부분은 비교적 완전한 편이다. 2 굴 왼쪽 감실의 본존과 유사한 작풍이며, 협시보살도 오른보살의 X 자의문, 세밀한 주름 등 마찬가지로 양식인

데 머리는 역시 없어졌다. 감실 밖의 왼쪽 수하보살과 유마거사상은 山口컬렉션과 오사카시 립미술관, 좌우 공양자상은 포그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다.

오른쪽 감실에도 불의상 삼존상이 새겨져있고 감실 밖에는 왼쪽 공양자상, 오른쪽 문수보살과 공양자상이 얇게 부조되어있다. 그러나 이들 모든 상들은 완전히 없어지고 오른쪽 협시보살만 신체 일부의 흔적을 남기고 있을 뿐 참혹한 정경이다. 오른쪽 협시상의 머리와 감실밖 양쪽의 부조상들은 대부분 포그미술관에 수장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전모를 짐작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제 4굴 (도 5, 도 6)

3굴을 지나 西進하다보면 높은 벽면에 상하 2단의 작고 얇은 감실들을 파고 불상들을 새긴 것이 보인다. 상단에는 7개의 아치형 감실이 있는데 각기 좌상 1구씩 새겨져 있고 하단에는 보주형 감실이 3개 있는데 각기 삼존상이 새겨진 것이다. 이 벽면을 지나면 바로 옆에 뚫려 있는 4굴을 보게 된다. 벽면을 일단 파고 들어간 곳에 사각형에 가까운 입구를 내고 있는데 이 입구를 들어서면 1.4 m 정방형 평면에 높이 1.9 m 굴실이 전개되고 있다. 이 굴실 역시 20 cm 나 암반을 파서 정연한 평면을 만들어 단을 설치하고 있다.

후벽에는 감실을 파고 불좌상과 2나한을 고부조로 새겼는데 본존은 머리부분이 떼어져 일본 당본컬렉션이 되었으며 오른팔 오른 무릎에서 대좌에 걸쳐 깨어진 외에는 대부분 남아있는 셈이다. 풍만한 가슴 잘쭉한 허리, 탄력있는 부피감, 얇게 밀착된 通肩衣 등 당양식의 불상이다. 향마촉지인을 한 오른손은 깨어졌고 裳懸座의 옷주름은 복잡하게 주름져 변화를 주고 있으며 대좌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오른쪽 나한상은 하반신만 남아있고, 왼쪽 나한은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왼쪽 벽면(東壁)에는 특이하게 7중연화좌 위에 앉아있는 보살상 1구와 그 왼편에 서 있는 보살상 2구 등 삼존보살상이 새겨져 있지만, 모두 떼어져 미국에 있으며(좌상 머리는 빅터 후지컬렉션, 입상은 넬슨갤러리) 보살좌상의 대좌 하반부만 남아있을 뿐이다.

오른쪽 벽면(西壁)에도 왼쪽과 마찬가지로 보살좌상 1구와 보살입상 2구를 새겼는데, 입상은 완전히 떼어져 신체는 넬슨갤러리에 수장되어 있고, 좌상도 두부는 떼어져 山中컬렉션이 되었으며, 신체 일부만 남아있을 뿐 크게 파손되었다.

5) 제 5굴 (도 7)

4굴을 나와 서쪽으로 가면 너비 1.4 m, 높이 1.3 m의 작은 감실형 석실을 보게 된다. 바로 5굴이다. 안으로 들어가면 후벽에 불좌상이 환조식으로 조각되어 있다. 높고 둥근 圓座상단의 상현좌 위에 결가부좌로 앉아있는데 禪定자세의 불좌상은 머리(山中컬렉션)가 떨어졌고 표면의 탈락이 약간 보일 뿐 다른 부분은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있는 셈이다. 60 cm 높이의 작은 불상이지만 가슴이 발달되었고 허리가 잘쭉하며, 얇게 밀착된 통견의 속에 드러난 양

감은 탄력적이어서 당양식의 특징이 잘 묘사되어 있다.

오른쪽 벽면에 안락좌로 앉아있는 보살좌상 1구가 보이는데 가슴 윗부분이 없어지고 남아 있는 배 부분이하도 풍화가 심한 편이어서 세부 특징은 구별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왼쪽에는 나한입상 등 2구의 입상이 있지만 풍화가 심하여 흔적만 남기고 있을 뿐이다.

6) 제 6굴(도 8)

5굴을 지나 몇 발자욱 서진하면 6굴과 만나게 된다. 입구 좌우에는 인왕상(高 1m)이 부조되어 있는데 왼쪽상의 무릎이하만 약간 남아있을 뿐 모두 떨어져서 흔적만 남기고 있다. 1.2m 높이의 입구는 약간의 아치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입구를 들어서면 높이 1.8m, 한변 너비 1.3m의 작은 굴실이 나타난다. 암반을 20cm나 파서 바닥을 마련했는데 풍화로 침식되었다.

후벽에는 향마촉지인을 짓고 있는 불좌상과 좌우 나한상 등 삼존상이 고부조되어 있다. 본존상은 머리와 오른팔이 없어졌고, 표면이 풍화되어 상체의 의문이 약간 마멸되었을 뿐 다른 부분은 양호하게 남아있는 셈이다. 당당하고 양감이 발달된 체구로 당양식의 특징이 잘 보이고 있다. 대좌는 매우 높아 3중의 방형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단에는 반전된 연화문이 있고 상단에는 복잡한 상현좌를 이루고 있다. 두 나한상은 머리가 모두 없어졌고 체구도 표면이 거의 마멸되었는데 다리 부분에 의문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정도이다.

왼벽에는 중앙 佛倚像, 왼편에 3구의 보살입상, 오른편에 보살반가상이 부조되어 있는데 중앙 佛倚像은 하대일부만 남아있을 뿐 완전히 박락되었고(머리 蘊山컬렉션, 신체 섬서성), 왼편 보살입상들도 떨어졌는데 상부는 빅터후지컬렉션에 수장되었다. 오른편 반가보살상도 크게 파손되었는데 오른다리 대퇴부에서 무릎에 걸쳐 원형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

오른벽에도 왼쪽과 대칭되게 부조상이 있는데 본존은 선정인의 좌불상이며, 왼편에 보살좌상, 오른편에 3구의 보살입상이 서 있다. 본존은 머리가 없어지고 오른편 무릎과 그 밑의 대좌일부가 파손되었으며 상체의 표면도 풍화되어 세부는 알 수 없는 형편이다. 불상은 역시 작지만 당당한 느낌을 주는 당양식이며 비교적 우수한 조각으로 판단된다. 대좌는 3단인데 중단이 8각이고 상하가 연화좌이며, 상단에는 간략한 의문의 상현이 드리워져 있는 전형적인 대좌라 하겠다. 왼편 보살상은 역시 반가상인데 몸을 유연하게 틀고 있는 전형적인 성당양식이다. 머리와 왼다리가 없어졌고 전체적으로 마멸이 진행되어 세부 특징을 잘 알 수 없지만 감각적인 아름다운 보살상인 것은 분명하다. 오른편 보살입상 3구들은 흔적만 남아있을 뿐 형태는 전혀 알 수 없다.

7) 제 7굴(도 9)

6굴을 지나면 바위가 갈라진 커다란 틈새가 보이며, 이에 잇달아 감실형의 작은 굴실인 7굴이 나타난다. 너비 90cm, 깊이 70cm, 높이 1.3m의 작은 굴실은 벽면을 사이에 둔 거

대한 8 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다 작게 보이며 풍화가 심해서 빈약하고 쓸쓸한 느낌을 주고 있다.

후벽에는 항마촉지인 불좌상과 2구의 나한입상 등 당양식의 삼존상이 부조되어 있다. 54 cm의 작은 본존상은 방형대좌 위에 결가부좌로 앉아있는데 대좌와 가슴 부분이 파손되었고 전체적으로 마멸이 심한 편이며 광배에 붉은 채색이 남아있다. 나한상 역시 왼편 나한상은 머리가 없어졌고 신체는 풍화가 심하여 바위덩어리처럼 되었으며, 오른편 나한은 완전 박락되었다.

좌우 양벽에는 연화좌 위에 앉아있는 보살좌상 1구씩 부조되어 있지만 왼벽 보살은 양다리 이하만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 다른 부분은 풍화로 없어졌고, 오른벽 보살은 대좌 하반부만 남긴 채 흔적만 보일 뿐이다.

8) 제 8 굴(도 10, 도 11)

8 굴은 이 동봉에서 가장 거대하게 개착된 석굴로 여기서 본존굴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멀리서도 완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大窟이다. 즉 方形本室과, 연도 중심 石柱가 서 있는 方形前室로 구성된 본격적인 석굴이며, 9 굴외에는 가장 거대한 전형적인 석굴인 것이다.

입구는 前室로서 둥근 기둥(圓柱) 2기가 처마를 받치고 우뚝 서있는데 서쪽 기둥은 윗부분만 약간 남기고 끊어져 없어졌다. 사각형의 전실 동벽에는 이수를 새긴 磨崖碑가 있는데 비문에 “歲次甲辰年”이라는 명문이 있어서 수나라 開皇 4년인 584년에 비가 세워졌으며 따라서 8 굴의 조성년도도 이때라는 것을 알려준다.⁶⁾ 굴 자체에 굴개착년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절대년대를 가진 유일한 굴인 셈인데 21 굴과 함께 이 굴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비 옆에는 작은 인왕상(高 1.2 m)이 있었지만 현재 쪼아 없어졌는데 머리는 일본 등정유린관에 수장되어 있다.

아치형의 입구 양쪽 기둥 머리(柱頭)에 봉황이 부조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고 이 좌우에 인왕상(2.1 m)을 고부조로 새겼는데 이 역시 표면은 떨어져 등정유린관에 수장되어 있다.

主室로 들어서면 1번 4.4 m의 방형굴실이 3 m 높이로 뿔려있는데 중심에는 1번 2 m의 네모난 石柱가 세워져 있어서 돌면서 예배하도록 되어있다. 넓지 않은 공간을 돌아가면 벽면과 기둥 네면에 각각 부조상들을 새기고 있다.

후벽 감실안에는 본존불이 부조되어 있는데 침수로 표면의 마멸이 심한 편이다. 감실 밖 양쪽에는 각각 나한과 보살입상이 새겨져 있는데 왼쪽은 마멸되었지만 오른쪽의 보살은 머리가 없어지고 신체가 풍화되었으나 나한입상은 그런대로 남아있는 셈이다.

왼쪽 벽에도 후벽과 동일하게 감실안에 본존불, 감실밖에 나한과 보살입상이 각각 새겨져 있는데 모두 머리와 손이 없어졌을 뿐 체구는 잘 보존되어 있다. 본존은 사각형적이면서 평판

6) Vanderstappen, 앞 글, p. 196 및 水野清一, 『中國の佛教美術』, 平凡社, 1968, p. 329 참조.

적인 체구, 넓게 벌린 하체, 통견의에 선각적인 의문 표현 등 수양식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대좌는 方形座인데 3단을 겹쳐 올린 특징적인 것이다. 보살과 나한은 경직된 체구, 간략하고 선각적인 모델링 등 본존과 같은 특징이다.

오른쪽 벽도 왼쪽과 마찬가지로 본존좌불상과 좌우에 나한·보살상 각 1구씩 부조된 5존 불상이 새겨져 있다. 왼쪽 나한·보살상은 파손되었는데 보살머리는 독일 쾰른동양미술관, 나한 머리는 베를린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오른쪽 나한상은 하반신이 없어졌고 머리와 상체는 표면이 용해되었으나 윤곽은 그대로 보이고 있으며 보살은 풍화되어 흔적만 남기고 있을 뿐이다.

돌기둥 네면에는 각각 감실을 마련하고 불좌상과 나한 2구 등 삼존불을 새기고 있으며 감실은 장막과 커튼으로 장식하고 있다. 불상과 나한의 머리는 모두 떼어졌으나 대좌나 체구는 보존상태가 매우 좋은 편이다. 이들 조각양식은 벽면 像과 거의 흡사한 평판적이고 사각형의 경직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좌는 방형대좌가 아닌 8각형연화대좌인 것이 다른 편이다.

석주 상방에는 장막이 촘촘하게 새겨져 있는데 상단에도 세밀하게 부조상을 새기고 각기 채색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別 1. 상층굴(上層窟)

2굴을 돌아 뒤로 올라가면 상층부 석굴로 올라갈 수 있다. 이 상층부 석굴에 대해서는 아무도 석굴번호를 붙이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모두 4개의 굴실이 2·3·4굴 상층부에 개착되어 있는데 2개굴은 작은 감실형이고, 2굴은 꽤 큰 석굴(上層窟)이다. 上1·2·3굴은 배란다형 전실이 있어서 전면이 뚫려있는데 2구의 석주(1柱 完全)가 서 있다. 上1굴은 장방형 감실인데 현재 아무 것도 없으며, 上2굴은 타원형의 작은 감실인데 후벽에 불상이 봉안되어 있지만 잘 남아 있지 못한 편이다. 上3굴은 方形석실인데 後·東·西 3벽면에 환조의 삼존상이 봉안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불완전한 편이다. 가령 서벽의 경우 구멍 바로 옆에 환조의 대좌가 놓여있는데 대좌의 벽면에는 보주형 광배가 채색으로 그려져 있고, 옆에도 작은 불상 등이 채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원래 대좌 위에는 환조의 불상을 안치했을 것이다. 원형대좌로 보아 당나라 양식이 분명하다. 西·後벽 구석에 둥근 구멍이 뚫려 있는데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구멍길을 기어 들어가면 또하나의 方形 굴실이 나타난다. 전실이 전혀없이 아치형 입구가 남면으로 뚫려있는데 밖은 낭떨어지 절벽면이다. 멀리 성수사 전경이 전개되고 있어서 절경이다. 입구 좌우와 다른 벽면에 걸쳐 千佛壁畫가 그려져 있는데 색깔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상들이 상당수 된다. 이 굴실에서는 아마도 스님들이 修行精進에 정열을 쏟았던 것처럼 보인다. 멀리 성수사와 천봉만학의 산들을 조망할 수 있다. 이 굴 앞에는 배란대를 설치하였을 것이나 없어지자 구멍을 뚫었을 것이다.

9) 제 9 굴(도 12)

2 굴을 지나 골짜기(백룡석굴)를 건너면 9 굴이 있는 암벽이 나타나는데 이곳에는 중수마애 석각이 보인다. 길을 돌아가면 현재 건대한 목조전실 3층 건물이 웅장하게 서 있다. 새로 신축한 건물이다. 원래 명나라 때인 1506년에 재건되었다가 청나라 때 重修되었으며,⁷⁾ 2차대전 직후인 1948년 실화로 소실되었다가 최근 옛 모양대로 3층 四重 건물로 복원한 것이다.

본존 大佛은 의자에 앉아있는 모양의 倚子像인데 장육상의 거의 배가 되는 8m 높이의 거구이다. 관불삼매해경에 보면 장육존상은 석가불, 그 10배 되는 160尺의 大佛은 미륵불이라 했는데 16丈의 대불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至難한 일이므로 대개 장육상의 배나 3배 크기의 미륵불을 만들고 있다. 이 불상은 앉아있는 불상이므로 실제로는 3배이상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어쨌든 어마어마한 거구의 불상이고 여러차례 화재를 만났겠지만 가장 완전하게 남아있어서 기적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육계가 큼직하고 나발의 머리칼을 하고 있어서 당나라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얼굴은 길면서 턱이지게 풍만하며, 활짝 웃고 있다. 얇은 통견의를 입고 있는 상체는 건장한데 가슴이 풍만하고, 양감이 풍부하며, 의자에 내린 두 다리는 크고 당당한 점 등 당 불상의 특징이 잘 표현된 당대 최고 걸작의 하나로 생각된다.

1층에는 중앙에 11m나 되는 거구의 관음보살입상이 서 있는데 우아하면서도 생동하는 형태미, 풍만한 양감과 흐르는 듯한 선, 아름다운 장신구 등에서 본존과는 또 다른 보살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좌우에는 사자 위에 앉아있는 문수보살상과 코끼리 위에 앉아있는 보현보살상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역시 당대의 대표작으로 손꼽힐만 하다.

10) 제 10 굴(도 13)

굴문을 나와 서진하면 10 굴이 나타난다. 지상에서 4~5m 되는 절벽 위 높은 곳에 굴들이 연이어 계속 개착되어 있다. 지붕 옆에 상하로 불상이 새겨진 작은 감실이 있고, 그 다음 마주치는 굴이 10 굴이다. 이 굴은 참혹하게 파괴된 대표적인 예인데 여기서 떼어간 조각들은 거의 전부 일본에 있다. 말하자면 일본이 파괴의 주범인 셈이다.

입구는 아치형인데 좌우에 仁王像을 새겼지만 현재는 왼쪽(向右) 인왕상만 남아있다. 방형의 굴실 안에는 후벽에 풍화가 심한 이불병좌상이 있고, 좌벽의 감실 안에 머리 없는 交脚菩薩像, 좌우에 완전히 떨어져 나간 보살과 머리없는 나한상이 협시되어 있다. 좌벽의 감실에는 풍화가 심한 본존불, 2 협시, 2 나한 등 5존상이 새겨져 있지만 본존의 머리는 없어졌고 오른쪽 나한 체구와 왼쪽 보살의 무릎 밑(암벽붕괴)만 남아있을 뿐이다. 입구 안쪽 양벽에도 신장상이 있었지만 떼어가 버렸다.

이들 머리는 모두 일본 동경 根津美術館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머리카 신체로 보아 北齊 때 작품으로 생각된다.

7) 『太原縣志』 成文出版社

11) 제 11 굴(도 14)

이 굴을 지나면 11굴을 만나게 된다. 불쭉 나온 바위에 개착한 작은 굴인데 깊이 84 cm, 높이가 90 cm 밖에 되지 않는다. 길에서 4.5 m 나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올라가 볼 수 없다.

굴 벽면 3면에 모두 불상을 새기고 있다. 지면에서 올라다보면 후벽에 항마인을 짓고 있는 불좌상과 좌우 나한상 등 3존상이 있는데 작은 상이지만 사실적이고 아담한 것이다. 오른쪽 벽에는 결가부좌한 전법륜인의 불좌상과 협시보살입상 그리고 왼쪽 벽에 佛倚像과 협시보살상 등이 새겨져 있었지만 현재 좌우벽 상들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오른쪽 본존 머리는 일본 山中 컬렉션이고 체구는 등정유린관소장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괴가 심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천정에는 8엽연화문을 중심으로 당초무늬가 그려져 있고 4모서리에 서운무늬(瑞雲文)가 채색되어 있는 것을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벽화는 원나라 때 이후의 후보작으로 생각되고 있다.

12) 제 12 굴(도 15)

이 굴에 잇따라 浮彫塔이 보이는데 바위 균열을 지나면 잇달아 감실 좌우에 부조탑과 나한상을 볼 수 있다. 12굴의 크기는 깊이 1.2 m, 너비 1.4 m, 높이 1.7 m 로써 굴이라기 보다 龕室이라 하는 것이 적합한 11굴 보다 훨씬 작은 것이다. 3벽에 부조를 새기고 있는데 후벽에는 항마인의 불좌상과 좌우에 나한상 등 3존불이 새겨져 있고 왼쪽 벽에는 방형대좌에 앉은 불좌상과 협시보살이 부조되었으며, 오른쪽 벽에는 중대에 반구형 장식에 있는 둥근 상형좌 위에 전법륜인의 본존과 양협시보살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특징은 당양식의 불상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3) 제 13 굴

이 감실 바로 옆에는 부조가 새겨진 초미니 감실이 세개 보이고, 잇달아 12굴보다 작은 감실(너비 63 cm, 높이 73 cm)이 있는데 바로 13굴로 부르고 있다. 여기에는 삼존상이 부조되었지만 현재는 양협시는 떨어져 없어졌고 본존상도 머리와 오른팔 그리고 두 다리에서 연화좌에 걸쳐 파손과 마멸이 보이고 있지만 그런대로 원형태는 짐작할 수 있다.

14) 제 14 굴

이곳을 돌아가면 지상에서 2 m 정도 높이에 14굴이 개착되어 있다. 물이 흘러 내릴 수 있도록 바위 앞면까지 흠이 파져 있고 아치형굴실 입구 주위에는 일단의 사각형 감실이 마련되어 굴실의 모양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2 m 정도 높이의 바위를 올라 안에 들어가면 3.6 m의 원형굴실이 나타난다. 이 굴도 무척이나 황폐한 굴실이다. 후벽에는 3존상이 새겨져 있는데 본존은 倚像으로 머리가 없어지고

오른팔 상부가 파손되었으며 왼팔도 마멸되었다. 상체도 가슴과 배 등이 크게 마멸되었지만 팽창된 배나 의문이 약간 남아있고, 하체는 두 다리가 형태만 겨우 알 수 있을 뿐 크게 파괴되었다. 이 삼존상에서 떼어낸 각 부는 세계적으로 흩어졌는데 본존 머리는 미국의 와즈와스 아세네움에 있고, 오른 협시보살은 거의 떨어졌는데 머리는 根津美術館에 있으며, 체구는 스위스의 리에트베르그미술관에 있다. 좌협시는 머리가 없어졌고 체구는 윤곽만 남긴 채 거의 마멸되고 없다.

좌벽면에는 보살반가상(右)과 보살입상(左)이 새겨져 있는데 반가상은 머리가 잘려 없어졌고 두 팔과 두 다리도 상당히 없어졌으며, 가슴과 배 부분도 마멸이 심한 편이다. 그러나 남아있는 전체 형태는 적당한 양감과 긴장미 있는 표현으로 사실적이며, 팔과 가슴 등은 부풀면서도 통통한 양감을 보여주며 옷은 얇고 섬세하게 묘사되고 있어서 사실미를 더해주고 있다. 왼쪽 보살입상은 떼어져 머리는 대영박물관, 신체는 암스텔담 동양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오른쪽 벽면에도 왼쪽과 대칭적으로 왼쪽에 보살반가상, 오른쪽에 보살입상을 새겼는데, 두 상 다 떼어내어 반가상은 상현좌의 일부만 남긴 채 일본 국립동경박물관에 들어갔고, 입상은 머리는 동경박물관, 신체는 스위스 리에트베르그박물관에 수장되었다.

15) 제 15 굴

14 굴의 굴문을 나와 초미니 감실이 상하로 있는 암면을 돌아 들어가면 비석형 감실이 있고 바로 옆에 좌우로 인왕상을 새긴 굴실이 나타나는데 바로 15 굴이다. 상하 아치형의 굴문 좌우에는 인왕상이 새겨졌는데 하체가 거의 마멸되어 없어졌고 상체도 풍화가 심하여 세부가 보이지 않는다. 굴실은 깊이 2.1 m, 너비 2.4 m의 아담한 편인데 3면에 각각 3 존불이 새겨진 감실이 있었지만 이들 삼존불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다.

16) 제 16 굴 (도 16)

이 15 굴에서 암반을 타고 서쪽으로 30 m 쯤 가면 지상에서 6 m 높이의 절벽 위에 16·17 굴이 개착되어 있다. 높은 사다리로 오르거나 로프를 타고 오르지 않으면 굴실로 들어갈 수 없는 천연요새의 석굴이다. 굴의 평면은 前方後方인데 전실은 너비 5 m, 높이 2.7 m, 깊이 1 m의 사각형(方座)이며, 입구 양쪽에 8각기둥(八角柱)이 세워져 있는데 기둥柱頭에는 山形拱包가 있고 柱間 중간에 공포와 이 사이에 八字形이 새겨져 이른바 多包式 건축의 전면을 나타내고 있다. 전면이 완전하게 남아있는 것은 유일한 예이다. 서쪽 기둥에는 아직도 붉은 칠이 그대로 남아있고 전실 좌우 모서리에는 碑銘도 일부 보인다.

本室로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인왕형의 神將이 있지만 붕괴되어 밟고 있던 괴수만 보인다. 입구 아치형 문 좌우에 기둥이 있는데 기둥 머리에 있던 봉황부조상도 없어지고 말았다. 연도를 지나 본실 내부로 들어가면 어두컴컴해서 불이 없으면 잘 볼 수 없다. 사방 3 m, 높이 3 m(平天井)의 완전 方室의 평면이지만 각 벽면에는 감실(너비 1.5 m, 깊이 90 cm)을 뚫어 불

상을 새기고 있다. 3면 감실 안에 각각 5존, 후벽 감실입구에 보살 2구, 내부 입구 양쪽 신상 2구 등 총 19구의 조각이 새겨져 있어서 17굴의 조각 총수는 21구인 셈이다.

후벽의 본존은 결가부좌로 대좌 위에 앉아있는데 머리와 양손이 없어졌지만 신체는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다. 어깨가 넓고 중후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복제 불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원래 있었던 머리부분도 이런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두 협시보살과 두 나한상은 머리만 없어진 채 전체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는 편이어서 18굴 조각연구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그러나 감실입구의 두 보살상은 대좌의 일부만 남긴 채 흔적조차 없어지고 말았다.

오른쪽 벽면의 佛龕은 안벽이 파괴되어 17굴까지 뚫려있다. 본존의 머리와 두 팔이 파손되었지만 이 불상의 특징도 건장하고 당당하며 장대한 것으로 후벽본존과 동일하며, 원 머리부분 또한 비슷한 모양인데 육계없는 나발, 힘있는 모델링, 개성미 넘치는 형태미 등은 복제불상의 결작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왼쪽 보살과 나한상은 완전히 없어졌지만 오른쪽(右壁) 보살상과 나한상은 세밀한 옷주름선, 긴장된 형태미에서 본존과 동일한 특징을 보여준다. 왼쪽 벽면의 5존상은 파손되었지만 본존상은 다른 벽면의 본존상과 거의 동일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보살상과 나한상도 비슷한 모양이다. 왼쪽 보살은 떨어져 나갔고, 오른쪽 보살은 머리만 없으며, 오른쪽 나한은 물에 용해되었으나 왼쪽 나한상은 잘 남아있는 편이다.

17) 제 17 굴

얇은 벽을 사이에 두고 개착된 석굴이 17굴이다. 16굴보다는 좀더 작은 편인데 前室도 너비 2.7m, 높이 2.4m의 사각형 방이며, 본실은 직경 3.4m의 둥근 원형석실로 높이가 2.2m(2.2~1.7m)나 되는 돔형에 가까운 굴실을 이루고 있다. 이른바 前方後圓形 석굴이다.⁸⁾

전실에서 본실로 들어가면 원래 있었던 인왕상(1.5m)은 없어졌고 명문도 읽을 수 없다. 굴안에 들어서면 후벽에 3존, 좌우벽에 5존씩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 불상들은 16굴과는 달리 唐樣式을 나타내고 있다. 후벽의 본존은 방형대좌의 상현좌 위에 결가부좌로 앉아있는데 머리 부분은 떼어졌지만 신체는 인체미를 강조한 사실주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원래의 얼굴도 둥글고 복스러우며, 머리칼은 과상변형이다. 통견한 佛衣도 비교적 얇고 대좌 밑으로 상현좌도 나타내었다. 좌우에는 반가상이 봉안되었는데 상체 이상이 떼어졌지만 풍만한 체구, 날씬한 허리, 탄력있는 형태미 등 당양식의 특징이 잘 보이고 있다.

오른쪽 벽에는 불좌상과 좌우로 보살입상과 보살반가상이 배치되어 있다. 본존은 둥근 연꽃 대좌 위의 상현좌에 앉아있는데 풍만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후벽 본존과 비슷한 형태였다. 현재의 모습은 머리와 손이 파괴되었으며 협시보살들도 크게 손상을 입었는데 원모습은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다. 좌벽에도 5존상이 있지만 중앙 본존은 倚座勢로 앉아있는 점 외에는

8) 田中俊逸(『天龍山』, pp. 68~69)씨는 이 굴에 대해서 상세히 논의하고 있으며, 16·17굴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田村節子氏의 글(『天龍山第16窟·第17窟について』, 『佛教藝術』145號, 1982)이 있다.

불상양식은 비슷한 편이다. 좌우의 보살입상과 좌상은 사실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날씬하면서도 육감적인 표현 그리고 화려한 장신구 등이 인상적이다.

18) 제 18굴(도 17, 도 18)

17굴에서 다시 내려와 길을 따라 西進하면 나무에 가린 뿔뿔린 굴을 볼 수 있다. 앞에 가로놓인 바위를 밟고 간신히 굴을 오를 수 있는데 아래서는 천정의 단청도 볼 수 있다. 굴 입구는 2m 이고 굴안은 2.1m 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편인데 높이 2m, 길이가 2.6m의 장방형 굴실이 곧바로 나타난다. 안에 들어서면 3면에 감실이 만곡되어 있지만 역시 폐허처럼 보이기는 다른 굴과 마찬가지로이다. 이 굴의 조각들은 세계도처에 흩어져 있어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정경이 전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후벽에는 중앙에 불좌상 좌우에 각각 보살입상과 보살좌상을 새겨 5존상을 이루고 있다. 본존은 머리가 없어졌고 두팔, 왼쪽 무릎, 대좌상부 등이 깨어져 처참한 모습이며, 양협시보살입상은 모두 떼어졌고 좌상은 머리, 두 팔, 두 발, 대좌전면을 떼어내었다. 본존머리는 일본의 근진미술관, 오른쪽 협시입상은 캐나다 로얄 온타리오박물관, 우협시좌상의 머리는 라이덴 민족박물관, 좌협시입상의 머리와 가슴 부위는 근진미술관, 좌협시좌상의 머리는 山中 컬렉션(舊藏)에 수장되어 있어서 후벽의 불상들은 세계적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다. 왼쪽 벽면에는 불좌상을 중심으로 보살반가상과 보살입상을 새긴 5존상이 부조되어 있는데 중앙 3존상은 불완전한대로 약간 남아 있지만 좌우끝 보살상은 거의 떼어졌다. 본존 머리는 근진미술관에 갔고, 두 팔과 두 다리 그리고 상현좌 반 이상이 떨어져 없다. 좌협시 입상은 떼어져 가슴은 근진미술관, 하반신은 일본, 우협시입상은 떼어져 시애틀미술관에 있고, 양협시보살좌상은 떼어내어 토르소로 남아있는데 좌보살머리는 일본 산중켈렉션구장으로 되었다.

오른쪽 벽에는 삼존상이 있었지만 우협시보살은 완전 탈락되었고, 본존 머리와 오른팔, 가슴 윗부분, 양무릎이 파손되었으며, 왼쪽 보살은 머리와 오른다리와 왼쪽 어깨와 가슴 등이 파손되었는데 본존 머리는 동경국립박물관에서 떼어갔다. 이 굴의 조각들은 당나라 양식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14굴조각과 잘 대비되고 있는 걸작이다.

19) 제 19굴(도 19)

18굴을 돌면 암벽이 낮아지면서 서남으로 향하게 되는데 19·20·21굴이 나란히 개착되어 있지만 이들은 굴이 낮고 한적한 때문인지 완전히 파괴된 상태이다.

18굴을 돌아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굴실이 19굴인데 폭 1.2m, 길이 1.1m 밖에 안되는 감실형의 작은 굴실이다. 원래 후벽에 항마인을 한 불좌상과 좌우 나한상이 있었고 왼쪽 벽에는 안쪽에 佛倚像, 입구 쪽에 협시보살상이 조각되었으며, 오른쪽 벽에는 불좌상 1구만 새겨져 모두 6구의 부조상이 있었지만 이들은 침수되고 떼어가 현재는 폐허처럼 보인다. 즉 후벽의 본존과 나한이 완전히 깨어졌고 좌벽의 불의상은 얼굴이 깨어졌고 하체는 침수와 풍

화로 흠더미처럼 보이며, 오른쪽 벽의 불좌상은 거의 마멸된 상태여서 처참한 모습들이다.

20) 제 20 굴

19굴과 나란히 붙어있는 굴이 20굴인데 굴실을 만족되게 개착하여 3m의 둥근 굴실을 만든 것이다. 벽면에도 장식이 있고 천정에는 영락과 풍경을 매단 둥근 寶蓋가 묘사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수미단을 만들고 있다. 수미단 위에는 원래 후벽에 불의상과 좌우 나한의 삼존상이 있었고, 왼쪽 벽에는 불의상과 사자 탄 문수보살, 코끼리 탄 보현보살 등 3존불상, 오른쪽 벽에도 불좌상과 코끼리 탄 보현과 보살입상 1구 등 3존상이 부조되어 총 9존상이 새겨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문수보살상의 다리 부분만 남아있을 뿐이며, 후벽 본존의 하대에 새겨진 2명의 아틀라스형 난장이만 유일하게 원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21) 제 21 굴

이곳 3굴 가운데 가장 서쪽에 있는 굴이 21굴이다. 이 굴 또한 다른 굴과 함께 완전하게 파괴되어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눈뜨고 볼 수 없는 정경이다. 이 21굴은 “마리린리”의 설에 따르면 바로 우리 선인들이 천신만고하면서 개착한 역사적 석굴이므로 크게 주목된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다각적으로 상세히 논의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선인들이 개착한 석굴로 간주하고 이 석굴을 살펴보면 흥미진진할 것이다.⁹⁾

이 굴은 706년에 시작하여 707년에 완성되었는데 고구려의 遺將 순(琿) 장군과 백제 黑齒常之장군의 딸 낙랑군부인 부부가

“706년 3월 어느 날 고원을 넘고 대협곡을 지나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면서 간신히 이 성역에 도착해서”

라 한 기록에서 이들은 황폐된 석굴사원에 또 다시 석굴을 개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부부가 석굴의 부처님을 조성하면서 발원한 내용은 무엇이였을까. “선조와 생존하는 인척을 위하여 三世佛像과 聖賢을 경조했다”는 선조와 인척은 바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亡國의 선조이며 유민이니 고국과 선조들에 대한 절절한 원망을 여기 이 부처님들을 조성하면서 바랜 것이 아니었을까.

굴은 너비 2.4m, 깊이 3.3m의 둥근 원형굴인데 3면에 감실형으로 만족시켜 부조상을 새긴 것이다. 후벽에는 결가부좌한 불좌상과 좌우에 보살 등 3존불상을 새겼는데 현재는 본존은 대좌만 남기고 모두 떼어갔고, 좌협시는 완전히 없어졌으며 우협시보살도 머리 등이 거

9) Marilyn M. Rhie(A T'ang period Stele Inscription and Cave XXI at T'ien Lung Shan. Archives of Asian Art, xxvii, 1974~75)는 21굴에 대해서 상세히 논의하고 있다.

의 파손된 상태이다. 본존의 머리부분은 포그미술관에 있고, 우협시도 머리는 매트로폴리탄, 신체는 일본 出光美術館에 소장되어 있으며, 좌협시의 머리는 근진미술관에 있다. 얼굴은 등글면서도 박력있으며, 통견한 얇은 佛衣는 가슴을 거의 노출시킨 상태인데 젓가슴이 발달되었고, 허리가 잘룩하며 인체적인 부피감으로 생동감이 넘치고 있어서 사실주의양식의 완성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왼쪽벽(東壁)은 중간으로 균열이 나 있는데 본존과 양협시보살은 이미 파손 또는 떼어갔다. 우협시보살의 경우 머리는 베를린박물관, 신부는 샌프란시스코의 드용박물관에 있는 것이다. 특히 본존은 원래 의좌상이었는데 현재 수리되어 동경국립박물관 동양관 1층 중앙에 놓여있다. 본존 倚像은 가슴이 발달되었고, 신체양감이 인체적이어서 사실조각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굴 개착 이후인 720년경에 후보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그런데 좌협시보살상은 풍만하고 유연하면서도 풍성한 형태와 부드러운 형태미를 보여주고 있다. 오른쪽 벽의 본존과 왼쪽 협시보살상은 완전히 없어졌지만 오른쪽 보살은 안면을 떼어간 채 머리형태와 모발부분은 남기고 있다. 그런데 왼쪽 보살머리는 예구치컬렉션, 체구는 보스톤미술관, 우협시보살의 머리는 베를린박물관, 체구는 샌프란시스코 브랑데지컬렉션에 들어가 있다.

22) 白龍窟

계단이 끝나는 계곡에는 “白龍洞”이라는 굴이 있는데 아치형 입구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길게 석단이 마련되어 있고 벽에 가까이 7구의 道教尊像이 안치되어 있다. 童男童女까지 합치면 9구인데 모두 나무조각(木造)에 채색한 상이어서 수준작은 된다. 이 굴은 도교굴이어서 천룡산 동서봉 석굴에는 제외되고 있지만 북굴 3개 중에 포함된다.

23) 천불동 석굴

성수사 문앞에는 넓은 광장이 있는데 근래에는 주차장으로 쓰이지만 조망하기 좋은 전망대이다. 멀리 능선에 서있는 白塔을 보면서 절 남쪽 골짜기를 내려가면 千佛洞石窟이 나타난다. 계곡 절벽의 낭떠러지면에 석굴이 뚫려있는데 현재는 접근할 방도도 없지만 안을 살펴보니 모두 파괴되어 제대로 된 석굴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골짜기 계곡의 냇물과 멀리 골짜기 너머 풍광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경관 속에 자리잡고 있어서 천룡산석굴 가운데 수도처로 가장 적합한 것 같다.

2. 石窟의 구조

이상의 현상에서도 살펴보았다시피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9굴이나 8굴을 제외하면 천룡산 석굴의 구조는 단순한 편이다. 이들 구조는 평면을 중심으로 입면 천정 등을 종합해서 석굴 형식을 분류해 보자.

첫째(第1) 方形石窟形式이다. 초기의 2·3窟 등이 이 형식에 속하는데 前室이 개착되지 않아 主室만 方形(네모꼴)형식인데 원래 전실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잘 알 수 없다.

둘째(第2) 前方後方 석굴형식이다. 1·8·16窟 등이 이 예에 속하는데 8굴처럼 전실에 돌기둥(石柱)이 배치되거나 本室 중심에 方形石柱가 있는 완형의 석굴형식도 있다.

셋째(第3) 前方後圓석굴형식이다. 4·6·12·14·15·17窟 등인데 전실이 方形이나 本室은 둥근 圓形의 굴형식이다. 벽면은 둥글게 처리했으나 바닥은 네모꼴로 만든 4·6·12·17窟 등은 주목된다.

넷째(第4) 둥근 圓形석굴형식인데 둥근 본실만 있고, 전실이 보이지 않는 형식이다. 18·19·20·21·22窟 등이 이 예에 속하는데 원래 전실이 없는 지는 알 수 없다.

이처럼 第1·4형식이 전실이 있었다면 평면형식은 두 형식으로 한정할 수 있는데 本造前室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前室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IV. 佛像樣式의 變遷

천룡산석굴의 불상은 오랜 기간에 걸쳐 조성 불안되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여러가지 양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들 불상은 크게 세 양식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세부에서는 제각기 견해가 다르며, 제1양식은 東魏樣式으로 초기 불상에 속한다. 제2양식은 北齊·隋양식으로 중기불상들이다. 제3양식은 唐양식으로 후기불상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시기를 달리 구분할 수 있다. 시기구분과 양식에 대한 견해는 제각기 구구하여 일정하지 않는 편인데 대표적인 설만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불상편년〉

	입론자	제 1 기 : 東魏式		제 2 기 : 齊·隋式		제 3 기 : 唐式		
		굴번호	년대	굴번호	년대	기	굴번호	년대
1	벤더·스테판 마리린·리(미국)	2·3窟	540	1·8·10· 16窟	550-584	제 1 기	21窟	707(711)
						제 2 기	14窟	725
						제 3 기	4·6·18·5 (740)·17	726-750
2	鈴木潔(日本)					제 1 기	4·5·14·18	680-710
						제 2 기	21·6	710-720
						제 3 기	18(2벽)·17	730-750
3	荊三林(中國)	1·2·3窟	534-556	8·9·10·16	北齊 (550-577)	11·12·13· 14·15·16· 17·18·19· 20·21	618-906	
				4·5·6·7	隋 (581-617)			

1. 第1期 東魏佛像

동위불상양식으로 확실하게 인정되는 불상은 제 2·3굴의 모든 상들이다. 이 가운데 3굴의 상들은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단아하고 유연한 불상이지만 2굴 불상보다는 다소 수척하고 의습선도 평판적이어서 530년대의 불상들과 친연성이 짙은 것이어서 연대 판별에 도움이 되고 있다.¹⁰⁾

3굴의 불상들은 우아하고 세련된 귀족적 형태를 보여주는데 3굴보다는 사실화의 경향이 좀더 나타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얼굴이 다소 수척해졌고 눈·코·입이 작고 코뿌리가 높아 隋形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540년 전후의 상들과 친연성이 강해서 이 당시의 양식으로 보여지고 있다.

2. 第2期 齊·隋佛像

550년에서 600년경까지의 齊·隋시대에 조성된 불상은 제 1·10·16·8굴 등의 불상들로 생각된다. 제 1굴은 2·3굴의 불상과 같은 양식으로 보는 이도 있었지만 지금은 北齊시대의 작품으로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작달막한 손발, 둥글고 평평한 형태 등에서 560년대 불상과 친연성이 강한 것이다. 10굴의 불상은 부드러운 선묘를 보여주고 있으며 16굴도 부드럽고 단아한 자세 등에서 560년대의 불상들과 유사한 것이다.¹¹⁾

제 8굴은 비교적 완전한 불상인데 앞서의 양식이 남아있으면서도 안정되고 장중한 느낌을 주고있다. 명문에 나타난 584년의 편년과 상통하는 면이 보인다.

3. 第3期 唐佛像

천룡산 석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문제되는 불상이 바로 당불상들이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이 서로 편년관이 틀리고 있어서 정확히 양식편년을 정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다만 그들은 당불상이 700년에서 750년 사이인 약 50년간 조성되었다는 데는 모두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천룡산 석굴의 모든 당불상이 8세기 전반기에 속하는 불상으로 판단되므로 성당불상연구에 가장 중요한 불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제설을 일단 도표로 작성한 뒤 좀더 논의하기로 하겠다.

〈표 2. 唐佛像編年說〉

	680	700	710	720	730	740	750
Siren		4·5·6·14 굴	17·18·21				
水野清一		5(700년경) 4·6	14(713) 18(713-723)	21(713-741)		17 굴 (740년경)	

10) 關野貞(1921)은 560년대로 보고 있으나 이보다 20~30년 앞선 작품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田中俊一, 앞 책, pp. 38~40 및 林良一, 앞 논문, 1982, pp. 75~92, 그리고 반더·스테판, 앞 글, 1965 참조).

11) Vanderstappen, 앞 글, 1965 참조.

Vander Stappen Marylin.Rhie	21 굴 (707년)	21 굴 (710년대)	14(725년) 4·6·18(730년대)	5 굴 (740년대) 17 굴 (750년대)
鈴木潔	4·5·14·18	21·6		18(2벽)·17

이상의 편년설정에서 보다시피 700년에서 750년 사이에 조성되었다는 점은 모두 같다고 할 수 있다. 물론 鈴木潔의 경우 680년까지 상한년대를 올려잡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지만¹²⁾ 확고한 견해는 아니기 때문에 700년 전후부터 750년까지의 불상으로 판단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설들을 종합해 보면 710년대를 정점으로 寫實主義 佛像彫刻이 완성된다는 점은 일치하고 있다. 다만 스테판은 21굴이 사실주의의 정점이자 첫 작품이라는 설인데 비해 시렌이나 水野는 4·5·6굴이 이보다 앞섰고, 鈴木은 4·5·14·18굴이 앞섰는데 水野는 사실의 정점이 14굴이라는 것이며,¹³⁾ 앞선 상들은 완성을 향해 상승하던 시기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즉 스테판과 마린리는 정점의 불상보다 앞선 작품은 천룡산 석굴에서는 없다는 주장인데 비해 다른 학자들은 앞선 작품들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⁴⁾ 사실주의 완성조각의 전단계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곧바로 사실주의 조각의 완성불상부터 조성하기 시작했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 열쇠는 아마도 우리의 선인인 순장군부부가 개착한 석굴이 어느 굴이냐 하는 점이 판가름난다고 할 수 있다. 마린리는 순장군 부부가 황폐한 천룡산석굴을 보고 다시 개착하기 시작한 때를 기점으로 다시 석굴들의 개착되기 시작한다고 보고, 순장군부부가 개착한 석굴은 바로 21굴이라는 것이다. 순장군부부가 개착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사실조각이 완성단계에 도달했는데, 천룡산 가운데 그 완성작품이 21굴불상들이라는 전제에서 입론의 근거를 삼고 있다. 필자도 순장군 부부가 개착한 굴이 唐代石窟 개착의 시발점이라는 데는¹⁵⁾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순장군 조성굴이 어느 굴인지는 좀더 세밀히 분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점은 앞으로 별도의 논문에서 밝혀보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천룡산 唐 불상의 정점은 21·18·14·6굴의 불상을 드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다. 규모로 보나 기법과 양식으로 보나 이들 4굴이 가장 주목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글쓴이는 이 4굴의 하나가 순장군 부부의 조성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추정한다. 그들의 위치로 보나 造像碑文으로 보아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춘 석굴이 분명하며, 난숙한 조각수준으로 보아 이들 굴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12) 林良一·鈴木潔, 앞 글, 『佛敎藝術』, 1982 및 鈴木潔 「天龍山唐朝窟編年試論」 『論叢佛敎美術史』, 吉川弘文館, 1986.

13) 水野清一, 「唐代の佛敎彫刻」, 『佛敎藝術』 141호, 1982.

14) 松原三郎, 「盛唐彫刻以降の展開」, 『美術研究』 257호, 1968 및 鈴木潔, 앞 글, 1986 참조.

15) Marilyn Rhie, 앞 글, 197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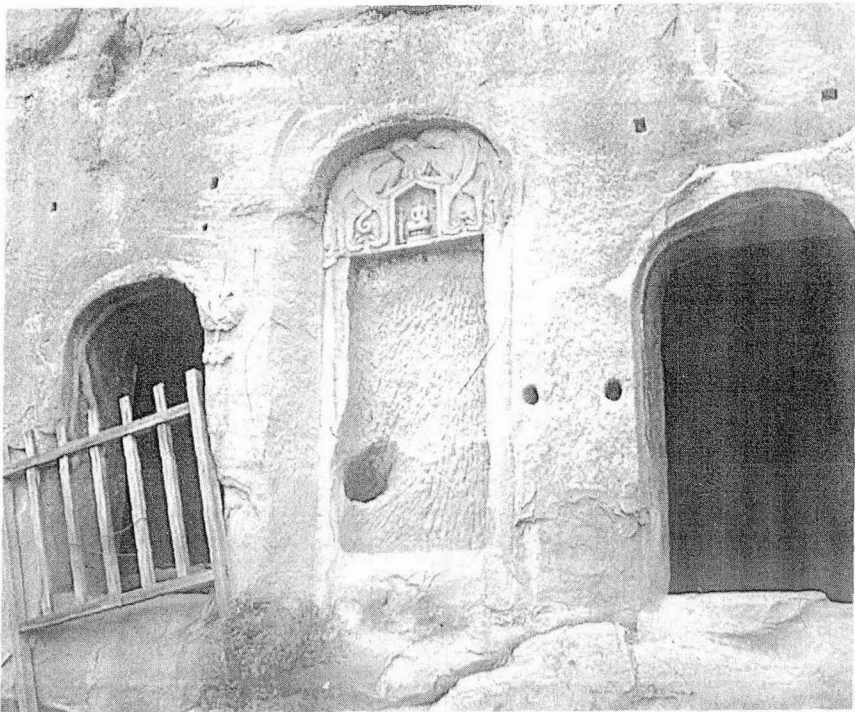
글쓴이도 21 굴의 불상이 천룡산석굴 불상 중 사실주의 조각의 완성이자 정점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앞서 든 4 굴의 불상 가운데 어느 굴의 불상이 먼저 조성되었는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V. 맺음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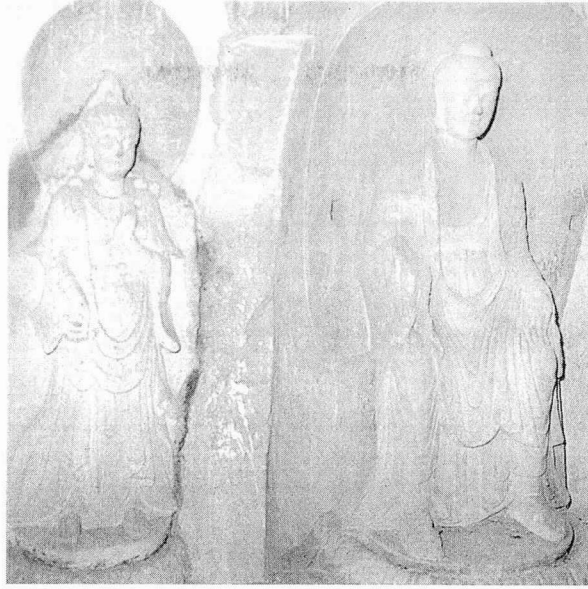
처음의 시도는 천룡산 석굴의 현상을 밝히고 樣式變遷과 그 역사적 의의 그리고 우리 신라 조각과의 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논의하고자 했지만 시간의 제약과 글쓴이의 역량부족으로 어느 하나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말았다. 앞으로 천룡산 석굴불상의 양식을 세밀히 분석하고 순장군부부의 조성굴과 우리 신라불상과의 연관성들을 좀더 치밀하게 논의하고자 하는 바이다.



〈도 1〉 천룡산 석굴 전경



〈도 2〉 천룡산 석굴 2·3굴



〈도 3〉 천룡산 석굴 제2굴 불상



〈도 4〉 천룡산 석굴 제2굴 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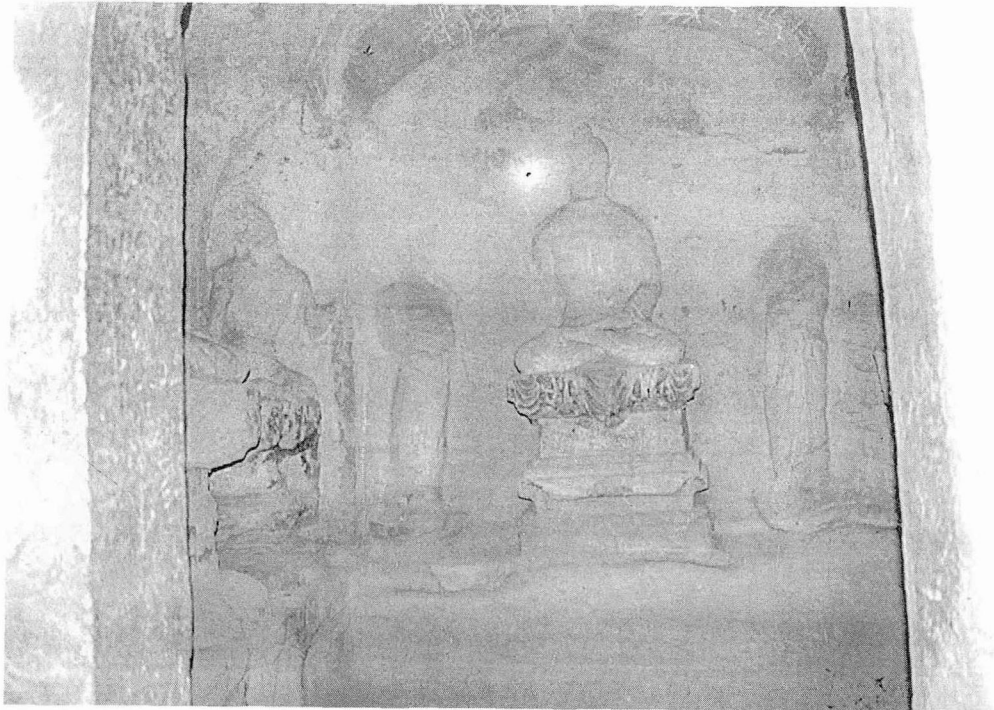
〈도 5〉 천룡산 석굴 제4굴



〈도 6〉 천룡산 석굴 제4굴 불상



〈도 7〉 천룡산 석굴 제5굴



〈도 8〉 천룡산 석굴 제6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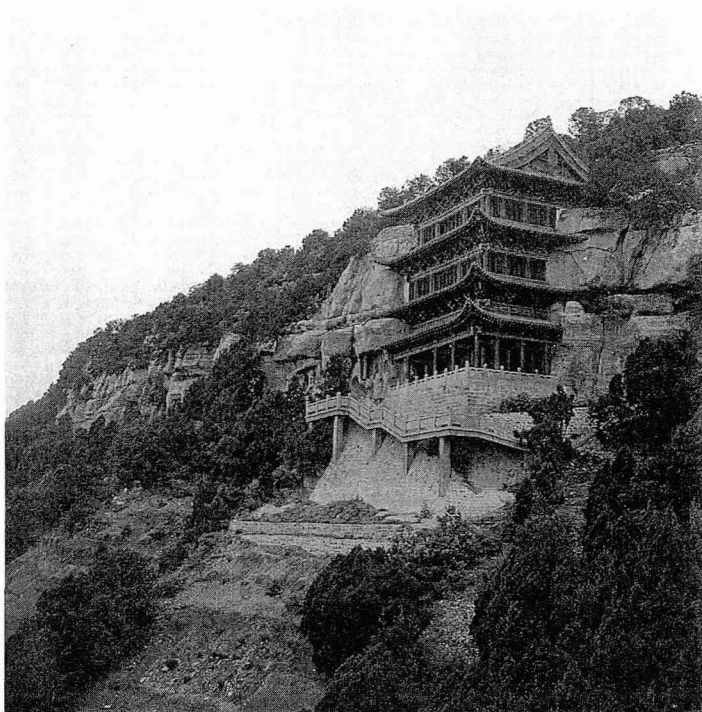
〈도 9〉 천룡산 석굴 제7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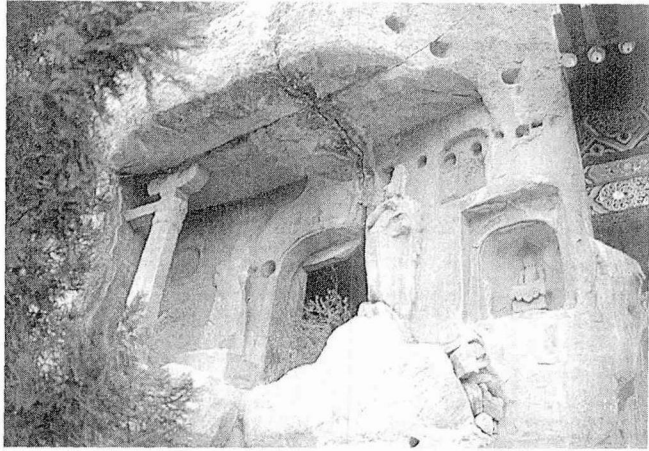
〈도 10〉 천룡산 석굴 제8굴 불상



〈도 11〉 천룡산 석굴 제8굴 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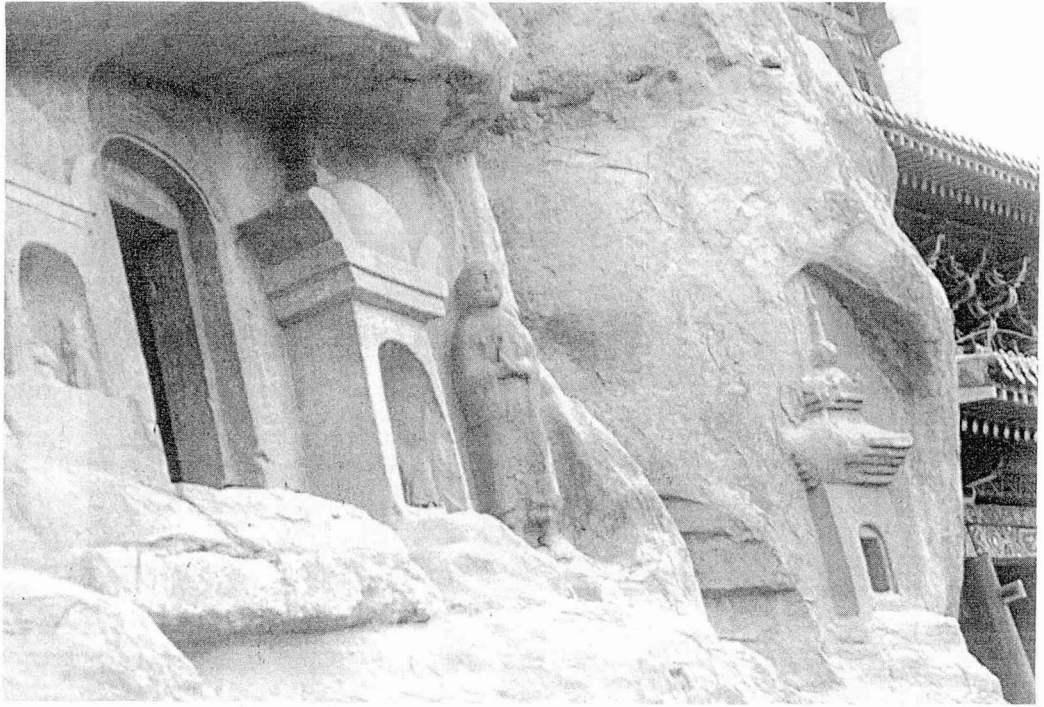
〈도 12〉 천룡산 석굴 제9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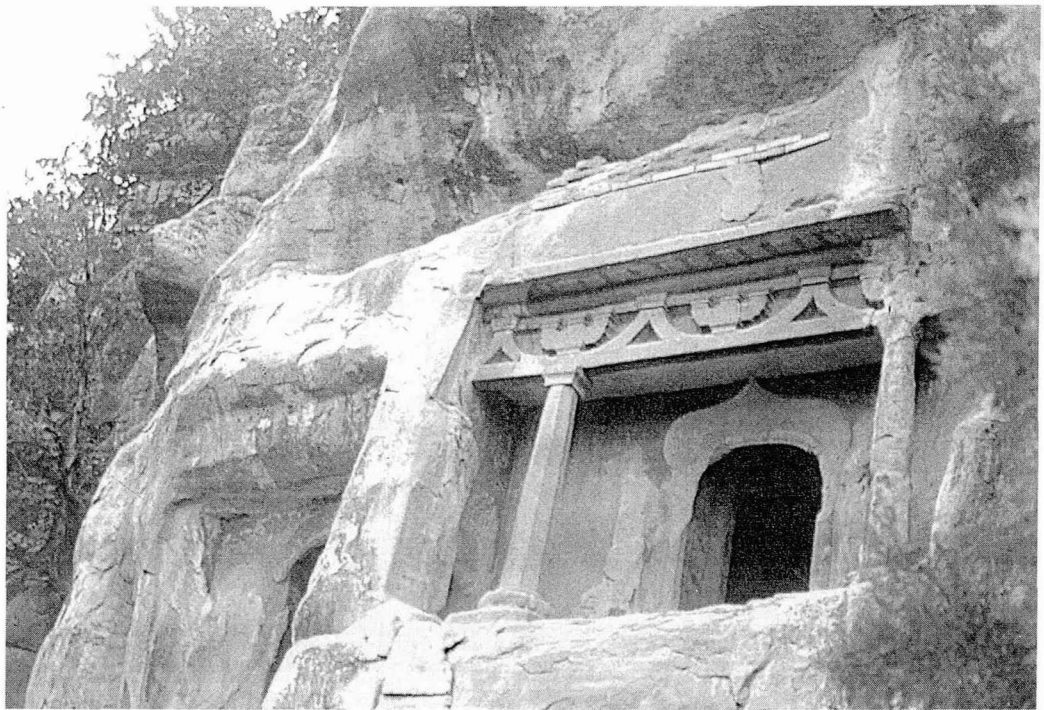
〈도 13〉 천룡산 석굴 제10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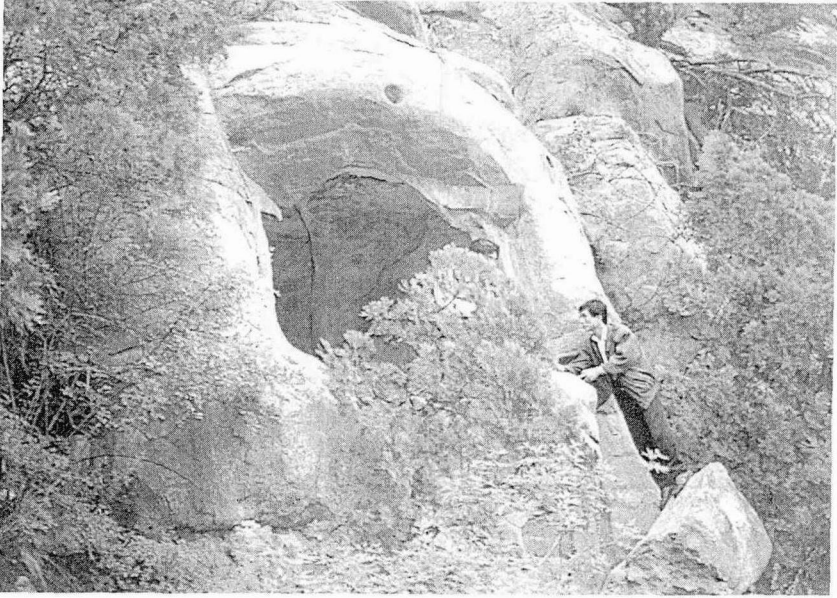
〈도 14〉 천룡산 석굴 제11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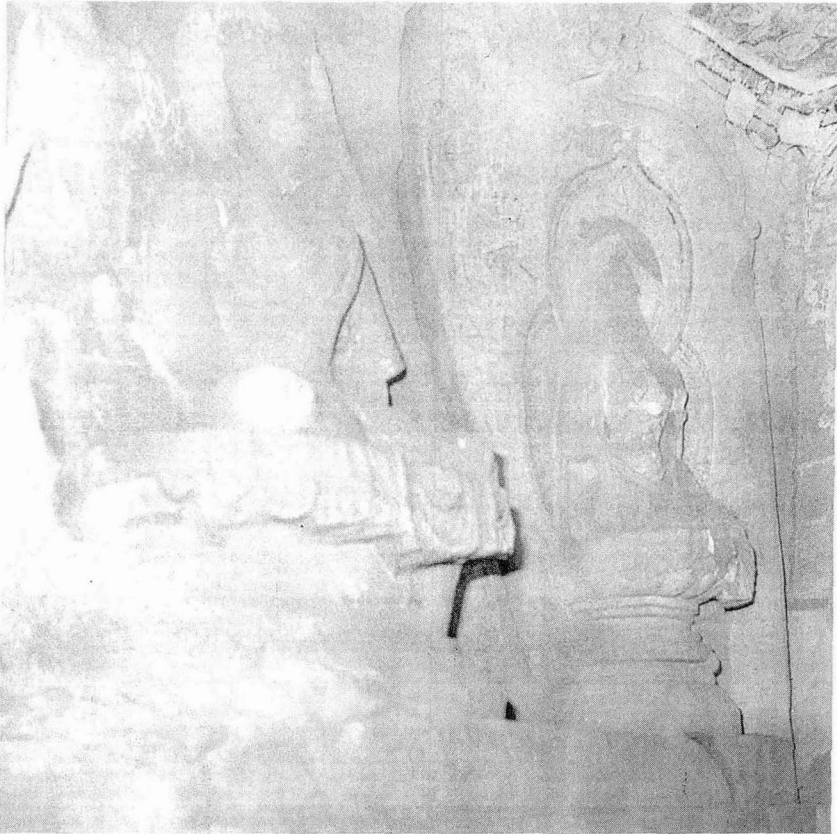
〈도 15〉 천룡산 석굴 제12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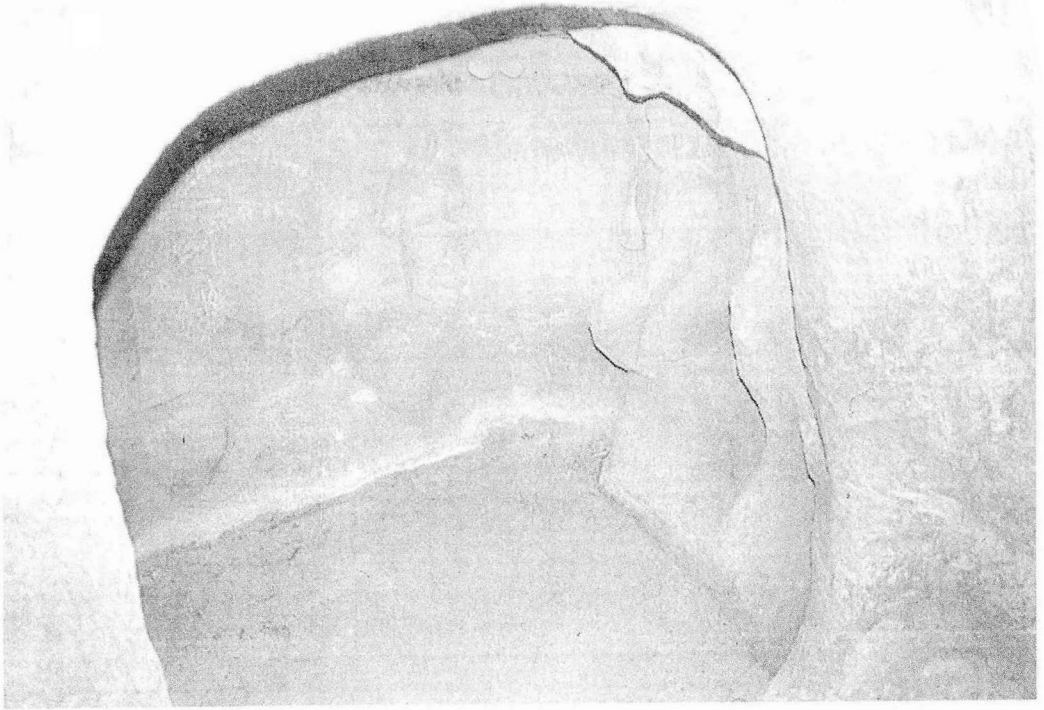
〈도 16〉 천룡산 석굴 제16굴



〈도 17〉 천룡산 석굴 제18굴



〈도 18〉 천룡산 석굴 제18굴 불상



〈도 19〉 천룡산 석굴 제19굴